



글로벌 기업 맥락에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진단 개발: 디자인 씽킹 설계 적용

김나희 (용인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ugust 22, 2022
Revised: November 05, 2022
Accepted: November 30, 2022

Nahee Kim,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Yong In Univ.
E-mail: jk52@yongin.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B5 A07111870).

ABSTRACT

Kim, Nahee. 2022. Developing diagnostic assessment of English speaking test preparation in a global corporation context: Application of design-think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1327-1350.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iagnostic assessment of OPIc test preparation in a global corporation context from test takers' perspectives using the concept of employee-test-taker identity (Kim 2019), guidelines for OPIc test takers (ACTFL 2020, OPIc 2020) and assessment of narrative identity (Kim 2020). Following design thinking procedures (Kim 2019), collected data were interviews with test takers, observation, documentation, field notes and research journal in workplace setting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is test - preparation assessment tool consisted of three sections: test value-oriented, test preparation-practised and English speaking-performed. Each was developed to assess test takers' understanding of test knowledge, their study methods in test preparation, and their actual speaking proficiency.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to revising assessment procedures and operating in various language assessment contexts including global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KEYWORDS

OPIc preparation, test taker identity, global corporation, speaking test, design thinking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 목적은 글로벌 기업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맥락에서 수험자 정체성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제작이다. 글로벌 기업의 인사제도(예: 취업, 승진, 인력선발 등)에서 OPIc 또는 TOEIC-Speaking과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 결과는 이미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프로그램 혹은 일대일 교습 등의 형태로 단기간 점수 획득 목표에 전념한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기업 맥락에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는 단지 채용 및 선발을 위한 일시적 학습이 아니라 점이다(김나희 2019). 기업의 업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 구술 능력이 요청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 등급 획득이 제시된다. 결국, 글로벌 기업의 필요는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 구술 능력 향상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목표 점수 획득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 준비는 단기 속성 시험 응시 전략 중심이며 실제적인 구술 능력 향상 진단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또한 직장인-수험자들은 최선으로 시험 준비 수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험자가 갖는 시험 준비법에 대한 여러 질문들과 혼란, 어려움 등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수험자 정체성은 명확한 단일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Kim 2013, 김나희 2019). 오히려 정체성 개념 자체가 갖는 추상 복합적 단면으로 인하여 언어 시험 및 시험 준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Kim 2013). 예를 들면, Kim(2013)은 수험자 정체성을 언어 시험 준비 맥락의 세 가지 단면에서 설명하였다. 즉, 목표 점수 가치(values), 시험 준비 활동(test preparation practices), 시험 불안감(test anxiety)이다. 목표 점수 가치는 시험 결과가 끼치는 영향으로 시험 준비 목적 및 이유와 연관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 준비 활동 방법에 영향을 끼치며 언어 능숙도 향상이 아닌 과도한 시험 응시 전략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결국, 높은 시험 불안감과 영어 말하기 두려움으로 수험자 정체성이 구성된다(Kim 2013). 시험 준비는 단순히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지식 스킬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시험 준비 환경에서 공유된 시험 준비 이유에 관한 시험 결과 가치 시험 준비 활동과 수험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의 수험자 정체성 형성이기 때문이다(김나희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험자 정체성은 언어 시험 준비 환경에서 공유된 목표 점수 가치, 시험 준비 방법 그리고 수험자가 경험하는 시험 준비 영향 등으로 전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 맥락에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 설계 절차(김건희 2019)를 활용하였다. 다음 장에서 직장인-수험자 정체성을 다루며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후, 디자인 씽킹 설계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장인-수험자 정체성

수험자 정체성 개념은 단일개념으로 고정되기 보다는 언어 시험 및 시험 준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는 정체성 개념으로 이해된다(Kim 2013). Kim(2013)은 수험자 정체성 개념 이해를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그림 2로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 맥락에서의 수험자 정체성 구성(test taker identity construction)을 제시하였다. 고부담 시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평가에서 시험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고부담(high-stakes) 또는 저부담(low-stakes)으로 구분된다(Fulcher 2010). 이 중 고부담 시험 결과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요구되는 시험 점수를 얻지 못할 때 학교 입학 및 취업 기회가 상실되거나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다. 영어 말하기 시험은 취업 및 승진 기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이다. 이러한 고부담 시험 맥락에서 다음은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Ki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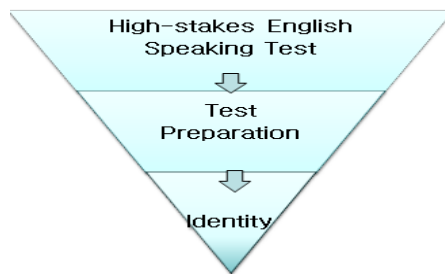


그림 1. 수험자 정체성 구성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high-stakes English speaking test)은 시험 준비 유형, 활동, 방법, 내용, 환경 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시험 준비 상황 속에서 수험자는 지속적 시험 준비 활동을 학습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 전략, 기술 등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이기 때문이다(Wenger 1998). 따라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는 시험 응시 전략, 시험 준비 방법, 기술, 지식 등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자 정체성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그림 1의 기본적인 개념 틀에서 수험자 정체성 구성 단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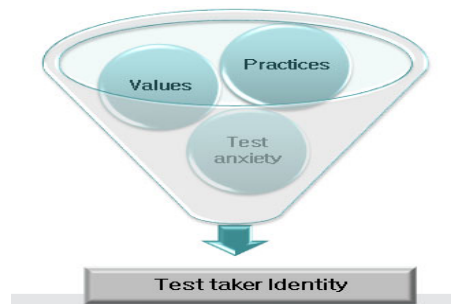


그림 2. 수험자 정체성 구성 단면

그림 2를 설명하면, 수험자 정체성(test taker identity)은 언어 시험의 세 가지 단면에서 구성된다. 먼저, 목표 점수 가치(values)는 수험자의 시험 준비 이유와 목적에 관련된다. 가치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기에 시험 점수는 개인 혹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goal), 신념, 믿음(belief)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험 결과 가치는 구체적인 시험 준비 활동(practices)으로 나타난다. 시험 준비는 시험 준비 유형, 방법, 활동, 그리고 넓게는 시험 준비 환경을 포함한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험자는 시험 불안감(test anxiety)을 경험하게 된다.

Kim(2013)의 수험자 정체성 개념을 활용하여 김나희(2019)는 실제 직장인-수험자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경험을 면담자료로 이해하였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직장인-수험자 정체성(김나희 2019) 특징을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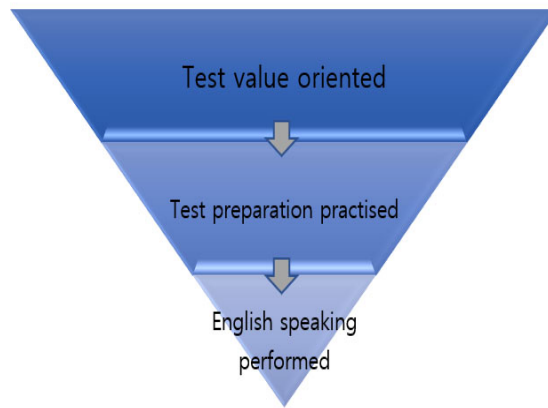


그림 3. 직장인-수험자 정체성

첫째, 시험 결과 가치 중심의 정체성(Test value oriented-identity)은 수험자에게 있어서 시험 준비의 목표 정체성으로 구현되었다. 조직에서 제시하는 목표 등급 획득을 통한 ‘인력상’이다. 예를 들면, ‘진급 및 인력 선발 지원자 되기’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인재 되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 정체성은 시험 준비 환경과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시험 준비 수행 정체성(Test preparation practised-identity)을 학습하게 된다. 즉, 실제 시험 준비 활동에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을 학습하였다. 수험자의 실제 정체성 정보(신분, 직업, 주제군)를 사용하는 ‘나의 말하기’가 아닌 단기간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을 위하여 시험 준비 교습에서 제공하는 시험 응시 및 답안 작성 요령이었다. 주목할 점은 직장인-수험자가 기업 맥락에서 자부하고 있는 핵심 개인 정체성은 전문가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였다. 업무 환경에서 이미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시험 준비 활동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결국, 시험 결과 가치와 상반되는 시험 준비 활동 수행은 실제 영어 발화 수행 정체성(English speaking performed-identity)에서 즉흥적 영어 구술 두려움과 시험 불안을 가중시켰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의의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 기반의 시험 준비 연구라는 점이다. 연구 현장 이해 및 실제 수험자와의 공감, 소통의 측면에서 기업 맥락의 시험 준비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러 제한점이 있다. 첫째, 수험자의 실제 시험 준비 이해에는 도움을 주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시험 준비 활동 점검 혹은 진단틀의 부재이다. 둘째, 수험자 정체성은 수험자 관점, 생각, 인식 등을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정체성 개념이 갖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으로 여전히 탐색적이며 시험 준비 콘텐츠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맥락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진단 제작을 탐색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제작 방법으로 이미 글로벌 기업에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DT) 설계 절차(김건희 2019)를 활용하고자 한다.

2.2 디자인 씽킹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DT)은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공감, 소통, 이해, 배려를 중심으로 한다(김건희 2019). DT 용어는 1987년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되고, 미국 디자인 컨설팅회사 IDEO와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d.school)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DT 프로세스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건희 2019). 1단계는 현장에서 문제 이해와 공감이다. 2단계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필요, 욕구 파악을 통한 문제정의이다. 3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다. 4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프로토타입 제작이다. 프로토타입(Prototype)은 말그대로 최종 결과물이 아닌 이전 단계의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가시화된 아이디어 제작이다(김건희 2019). 따라서 이 단계의 핵심은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빠르고 단순하고 손쉽게 테스트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다. 5단계는 프로토타입의 테스트와 검토이며, 이 단계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즉,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면서 요구 및 피드백에 따라서 반복 수정 보완의 작업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도출된다.

이러한 공감, 소통, 이해,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DT 설계 절차는 최근 간호학, 음악 및 유아 교육 등에서 학습자 관점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강명주, 정경희, 조정아 2019, 김수연, 오유진 2020, 배지현 2021). 특히, DT 설계 절차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 평가(Learner-directed assessment)와도 연계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평가는 언어 학습 및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5). 하지만 언어 구술 교육 및 평가 분야에 응용된 DT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적 후속연구로 수험자 관점의 공감, 소통, 이해,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DT 설계 절차를 활용한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현장 및 참여자

연구 현장이 되는 글로벌 기업 A는 기업 채용, 승진 및 인력 선발 등에서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영어 말하기 시험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직원들의 어학 시험 준비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사내어학과정(영어, 중국어, 일어 및 한국어 수업 등)이 연 4 학기(학기당 총 8주간 주 2회, 한 회당 2시간 해당)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기수행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2018년 해당 기업의 정규 사내어학과정에 처음 개설된 영어 말하기 스토리텔링 수업의 교수자로 직접 참여하였다.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능숙도는 OPIc 중급 레벨이며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예를 들면, 수험자 A는 40대이며 영어 레벨은 OPIc 중급(IM 2)이며, 업무에서 영어 사용은 영어 회의 참여이다. 수험자 B는 30대이며 영어 레벨은 OPIc 중급(IM 2), 업무에서 영어 사용은 영어 회의 참여, 이메일 교환, 해외출장 등이다. 수험자 C는 40대이며 영어 레벨은 OPIc 중급-하(IL), 업무에서 영어 사용은 이메일 교환이다. 수험자 D는 20대이며 영어 레벨은 OPIc 중급(IM 2), 업무에서 영어 사용은 해외 출장이다. 수험자 E(연령대 30대) 영어 레벨은 OPIc 중급(IM 2), 업무에서 영어 사용은 해외 출장이다. 구체적인 참여자 개인 정보는 참여자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3.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DT 설계 절차(김건희 2019)를 활용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에서는 본 연구 현장 이해를 위하여 연구 현장의 사내어학과정 영어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료(예: 교사일지, 수업 및 연구일지, 학습자 발화 샘플, 직장인-수험자 학습 면담 등)가 수집되었다. 예를 들면,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 형식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에게 직장에서 영어 말하기 사용 정도 및 영어 말하기 시험 응시 경험(예: 영어 말하기 시험 이름, 시험 준비 목적 및 목표 점수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또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시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수험자가 속한 기업 맥락에서의 시험 준비 이해,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 필요 및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전사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등은 표시하며 후속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단계 2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현장 이해, 수험자 필요/요구 파악 및 문제를 정의하였다. 단계 3은 문제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후 단계에서 해결책으로 제작될 프로토타입을 위한 설계 기준 및 이론적 근거를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하였다. 단계 4는 글로벌 기업 맥락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제작이 수행되었으며, 마지막 단계 5에서는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의 평가로 글로벌 기업 맥락에서의 프로토타입 테스트와 검토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교사일지, 수업 및 연구일지, 학습자 발화 샘플, 직장인-수험자 학습 면담, 기업 관계자와의 유무선 소통 자료 및 국내외 문헌 등이다. 녹음 자료는 Bryman(2004)의 질적 분석에 따라 전사되었으며 워드 파일로 정리하였다. 자료에서 나타나는 중요 어휘, 구, 절 등을 중심으로 시험 준비 특징들을 주제어로 범주화하여 분석 정리 하였다. 예를 들면, 주제어 '시험 준비법'의 하위어는 '학습 형태'이며, 그 아래에 '사내 프로그램 수강', '외부 프로그램' 및 '셀프 스터디'로 분류되었다. 위의 각 학습 형태는 다시 '학습법'으로 세분화되어 '시험 응시 전략', '모범 답안 암기', '수험자 답안 작성' 등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에 나오는 범주는 DT 절차에서 프로토타입 설계와 제작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발화 샘플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DT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프로토타입 테스트와 검토는 본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장기 지속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기업 현장 출입 및 직장인-수험자 면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은 후속연구에서 기업 현장 적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4. 시험 준비 진단 설계 및 제작

4.1 시험 준비 진단 기획

시험 준비 진단 기획을 위하여 정리된 연구 현장 필요 및 문제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험자는 시험 불안과 영어 말하기 두려움을 낮추는 실제적인 영어 구술 능력 향상을 통한 목표 점수 획득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시험 준비 진단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자의 시험 지식 이해 향상이다. 시험 지식 이해는 수험자가 준비하는 시험의 목표 등급 특징 및 시험 형태 이해를 의미한다. 연구 현장에서 발견된 시험 준비는 목표 등급 이해 및 시험 목적에 부합한 시험 준비 보다는 시험 준비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시험 응시 전략 중심이었다. 둘째, 수험자의 실제 시험 준비 활동 점검이다. 연구 현장에서 시험 준비는 사내외국어교육 혹은 사설 프로그램(오프라인/온라인), 자가 학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단기간 시험 등급 향상이 목표가 되다 보니 답변 암기와 같은 시험 준비 활동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혹은 수험자에게 익숙한 시험 준비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수험자 영어 발화 진단이다. 오로지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시험 준비 활동이 아닌 실제 구술 능력 향상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연구 현장 필요 및 문제정의를 통하여 설정된 구체적 목표를 중심으로 다음의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4.2 프로토타입 설계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으로부터 제작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참조점이 되는 OPIc 시험 절차 및 등급 안내(OPIc 2020), 수험자 가이드(ACTFL 2020, OPIc 2020) 및 내러티브 정체성 구술 진단(김나희 2020)의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한 도출된 결과 및 프로토타입 제작에서의 활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4.2.1 OPIc 시험 절차 및 등급

우선, 시험 시행사(OPIc 2020) 및 시험 개발 기관(ACTFL 2020) 사이트에서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시험 및 준비 정보를 검토하였다. 먼저, 시험 시행사의 웹사이트(<https://www.opic.or.kr>)에는 자세한 시험 정보들(예: 시험 소개, 시험 활용단체 및 방안, 채용정보, OPIc 소식, 인사담당자 인터뷰 및 선배들의 활용노하우)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그림으로 시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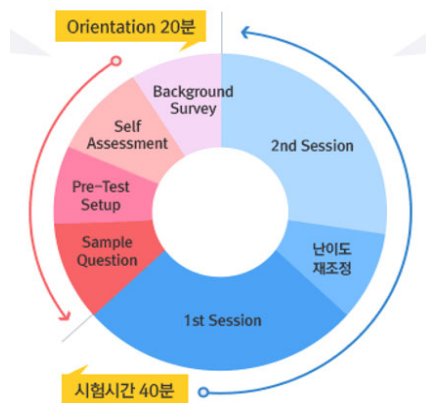


그림 4. OPIc 진행 절차(OPIc 2020)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진행되며 구성은 오리엔테이션(20분)과 실제 문항 출제(40분)이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문항 출제에 반영하기 위한 1. 수험자 사전설문(Background Survey)이 실시된다. 수험자는 개인 정체성 정보(예: 학생/직장인 신분 선택, 거주지 선택, 여가 활동 선택, 취미 활동 선택, 스포츠 선택, 휴가/출장 선택)를 선택한다. 2. 자기평가(Self Assessment)에서는 여섯 단계의 샘플답변을 듣고 수험자 언어 능숙도에 비슷한 레벨을 선택한다. 이후, 3. 시험 환경 점검(Pre-Test Setup)에서는 질문 청취 및 답변 녹음 기능 점검과 같은 사전 점검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4. 샘플 질문(Sample Question)에서는 화면구성, 청취 및 답변 방법 안내 그리고 답변 연습 등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된다. 이후 수험자 개인 정체성 정보 및 언어 능숙도 레벨이 반영된 개인 맞춤형 문항이 출제된다(총 문항 수는 15문제, 시험시간 40분). 주로 출제되는 문항은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사전설문에서 선택한 주제군이 반영된 개인 일상, 개인 경험 중심의 내레이션(personal story narration)과업이다.

위의 시험 설명과 관련하여 4.3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활용된 부분은 목표 등급 특징 및 시험 응시 절차의 4가지 영역(예: 사전 설문, 자가평가, 시험 안내, 출제 문항)이다. 즉, 수험자가 목표로 하는 시험 등급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 형태 이해도 점검에서 활용되었다.

4.2.2 수험자 가이드

시험 시행 사이트에서는 수험자 가이드 항목에 수험자 응시팁을 제공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OPIc 2020).

표 1. 수험자 응시팁(OPIc 2020)

구분	수험자 응시팁	내용
1	채점에 불리한 경우	o 평가 어종이 아닌 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경우 o 노래를 부르거나, 음담패설,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향후 응시 제한 조치 o 지나치게 짧은 답변 o 대화를 미리 연습한 주제들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암기 답변)
2	채점에 도움이 되는 경우	o 문제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답변하는 경우 o 단어나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내용 전달을 위해 설명하거나 비유, 즉,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지속하기
3	주변 응시자 배려	o 주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답변하는 경우 감독관은 시험 중 제지할 수 있으며, 좌석 이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시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의 수험자 응시팁은 시험 시행 시 수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총 3가지(1. 채점에 불리 및 2. 도움이 되는 경우와 3. 주변 응시자 배려)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시험 소개 항목 정보에 비하면, 수험자 가이드 항목은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물론, 시험 소개 항목 안에 실제 수험자들의 시험 성공 스토리들이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시험 시행사에서 제안하는 시험 준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생략되거나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시험 준비와 관련된 언급은 ‘대화를 미리 연습한 주제들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암기 답변)’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시험 개발 기관인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험자를 위한 도움말(Tips for OPI and OPIc Test Takers)은 좀 더 자세하다. 참고로 ACTFL은 196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영리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OPIc의 문항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OPIc 2020). 시험 개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험자 도움말의 첫 문장은 OPIc 시험 목적과 시험 준비 상관성이다. 즉, 시험 목적으로 ‘proficiency-based assessments that are designed to assess spontaneous unrehearsed language ability’ 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언어 능숙도 평가 기반으로 미리 연습한 주제로 준비한 암기 답변이 아닌 즉흥적 구술 발화의 평가임을 분명히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능숙도 발달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벼락치기와 같은 연습은 언어 능숙도 채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한다. 그리고 단계별 시험 준비 도움말을 제시한다(ACTFL 2020).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ACTFL 2020).

표 2. 수험자를 위한 도움말(ACTFL 2020)

구분	시험 준비 팁	내용
1	목표 능숙도 이해하기	o수험자는 먼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언어 능숙도 목표의 특징들 이해하기 o이를 위하여 명시된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시험 평가 등급 및 체계)이해하기 명시한다. o이러한 평가 등급표에 기술된 것을 기반으로 시험 준비하기
2	시험 형태 이해하기	o시험은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 시험(화면에 가상의 평가자가 등장) oOPIc Familiarization Guide를 이해하면서 시험 형태에 익숙해지기
3	시험 수행 전 활동 1	o시험 수행 수 시간 전부터 오직 시험의 목표 언어(예: 영어)만 사용하여 워밍업하기 o예를 들면, 영어로 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하며 오직 목표 언어로만 소통
4	시험 수행 전 활동 2	o시험 치르기 전의 수 주 동안 영어 뉴스를 읽거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어 청취
5	주의사항 1(암기답변 피하기)	o시험 목적과 부적절한 구술 답변 유형 상기 o시험 목적은 미리 연습한 주제로 준비한 암기 답변 평가가 아니기에 그러한 답변은 채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주의사항 2(완벽 구술에 집중하지 않기)	o완벽하게 구술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최고 등급에서도 실수는 발견되지만, 한 두 번의 실수 자체가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단, 그러한 오류가 습관적으로 구술되지 않는 것은 중요).
7	주의사항 3(휴식)	o시험 수행 동안 가능한 편안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있기 위해서는 시험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8	주의사항 4(가능한 많이 말하기)	o마지막으로 시험 수행 시, 평가자가 충분한 수험자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말하기

위의 시험 준비 정보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지속적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제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먼저 1. ‘Understand Your Proficiency Goal’ 이다. 즉, 수험자는 먼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언어 능숙도 목표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와 같은 시험 평가 등급 및 체계를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 등급표에 기술된 것을 기반으로 한 과제 및 활동으로 시험 준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2. ‘Understand the Test Format’ 은 시험 형태 이해하기이다. 시험은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 시험으로 화면에 가상의 평가자가 등장한다. 따라서 OPIc Familiarization Guide를 이해하면서 시험 형태에 익숙해질 것을 제안한다. 3. ‘Warm-Up’은 시험 치르기 전의 수 시간 전부터 오직 시험의 목표 언어(예: 영어)만 사용하여 워밍업을 한다. 예를 들면, 영어로 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하며 오직 목표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다. 4. ‘News and Current Events’는 실제 시험 수행 전의 수 주 동안 영어 뉴스를 읽거나 듣는다. 5. ‘Rehearsed Performance/Memorized Speech’에서 다시 시험의 목적이 강조되어 부적절한 구술 답변 유형을 언급한다. 즉, 시험 목적은 미리 연습한 주제로 준비한 암기 답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답변은 채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Perfection”은 완벽하게 구술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최고 등급에서도 실수는 발견되지만, 한 두 번의 실수 자체가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오류가 습관적으로 구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

‘Rest’는 시험 수행 시간 동안 가능한 편안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 ‘Speak’, 시험 수행 시, 평가자가 충분한 수험자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말하는 것이다.

위의 시험 시행사 및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수험자 가이드와 단계별 시험 준비 정보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본 연구의 4.3 프로토타입 제작 시 전체적인 시험 준비 진단 틀 구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4.2.3 윤리적 시험 준비

국내외 언어 평가 영역에서 시험 준비 활동 진단에 관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여전히 전통적 관점의 시험 개발의 타당화 점검 등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험 준비 활동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언어 평가 영역 이외의 교육 평가에서는 이미 윤리적 관점에서 시험 준비 활동을 점검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표는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Mehrens와 Kaminski(1989)의 시험 준비 활동 유형(Types of test preparation activities)이다.

표 3. 시험 준비 활동 유형

구분	유형	판정
1	시험 목적이 아닌 전반적 교육 목적을 위한 활동(General instruction on objectives without reference to the test objectives)	윤리적(ethical)
2	시험 수행 기술(Teaching test-taking skills)교육	윤리적(ethical)
3	사교육에서 행해지는 교육(Instruction on objectives generated by a commercial organization)	불분명(unclear)
4	인증된 시험 목적 기반의 교육(Instruction on objectives that match those on the test to be administered)	불분명(unclear)
5	시험 문항과 같은 형태를 연습하는 특정 목적 기반의 교육(Instruction on specifically matched objectives in which the practice follows the same format as the test questions)	불분명(unclear)
6	같은 시험의 유형과 동일한 출판된 시험의 연습(Practice on a published parallel form of the same test)	비윤리적(Never ethical)
7	같은 시험의 연습(Practice on the same test)	비윤리적(Never ethical)

Mehrens와 Kaminski(1989)는 시험 준비 활동 유형(Types of test preparation activities)의 적절성을 윤리적/비윤리적 연속성(Continuum of Test Preparation Activities)에서 총 7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간략히 설명하면, 윤리적 시험 준비 활동으로는 1. 시험 목적이 아닌 전반적 교육 목적을 위한 활동(General instruction on objectives without reference to the test objectives)과 2. 시험 수행 기술(Teaching test-taking skills)교육이 해당된다. 반면, 비윤리적 활동으로는 6. 같은 시험의 유형과 동일한 출판된 시험의 연습(Practice on a published parallel form of the same test) 7. 같은 시험의 연습(Practice on the same test)이다.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는 3. 사교육에서 행해지는 교육(Instruction on objectives generated by a

commercial organization), 4. 인증된 시험 목적 기반의 교육(Instruction on objectives that match those on the test to be administered), 5. 시험 문항과 같은 형태를 연습하는 특정 목적 기반의 교육(Instruction on specifically matched objectives in which the practice follows the same format as the test questions)이다.

위의 윤리적 시험 준비는 프로토타입 제작 시 시험 준비 활동 진단과 관련하여 4.3.2 시험 준비 방법의 적절성 점검(예: 학습 모드, 학습 방법 및 학습자료)을 위한 참조로 활용되었다.

4.2.4 개인 경험 구술 진단

OPIc 영어 말하기 시험의 주요 문항은 개인 경험 이야기 구술(personal story generation)과업으로 수험자 개인 정체성 정보가 반영되는 내러티브 정체성 구술이다(김나희 2020). 내러티브 정체성 구술은 화자가 일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과거 개인적 경험을 성찰, 해석, 이해, 직접 구술하며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화자(narrator)의 언어 구술 정체성이다(Ricoeur 2010, 김나희 2020).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시험 응시 절차에서 수험자는 사전설문의 신분, 직업, 거주지, 주제군(취미, 여가, 휴가, 스포츠, 출장 활동 선택)등을 선택한다(OPIc 2020). 그리고 자기평가에서 수험자가 구술할 수 있는 과업 레벨을 스스로 선택한다(OPIc 2020). 이러한 수험자 개인 정체성 정보 및 과업 레벨은 실제 문항에 반영되어 출제된다. 즉, 수험자가 감당해야 하는 개인 경험 이야기 구술 과업에는 수험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떠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지 등에 대한 개별 수험자 정체성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자의 시험 준비에서는 시험 응시 절차에 포함된 사전설문의 신분, 직업, 거주지, 일상, 관심, 개인 경험 등과 같은 수험자 개인 정체성을 성찰하게 된다. 선택한 주제에 따라서 즉흥적 구술 발화를 녹음하며 자기평가를 통해, 내러티브 발달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김나희 2020). 이를 위하여 제안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20)은 1) 내러티브 발달 단계, 2) 내레이터(narrator)정보/성찰, 3) 내러티브 전달/소통으로 구성된다. 먼저, 내러티브 발달 단계는 수험자 발화 샘플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 구술 능숙도이다. 두 번째 요소인 내레이터(narrator) 정보 및 성찰은 발화자 관점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하며, 사건에 대한 감정, 생각, 성찰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화자 정체성 정보의 구술이다(김나희 2020). 마지막으로 청자를 의식하며 다양한 전달모드에서 상호작용 소통 구술이다. 궁극적으로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언어로 총체적인 화자 정체성이 반영된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김나희 2020).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20)의 세 가지 구성 중에서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1) 내러티브 발달 단계와 2) 내레이터 정보/성찰이 프로토타입 제작(4.2.4 개인 경험 구술 진단)시 활용되었다.

4.3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작성을 위하여 앞서 제시한 그림 3. 직장인-수험자 정체성을

활용하여 OPIc 시험 절차 및 등급 안내(OPIc 2020), 수험자 가이드(ACTFL 2020, OPIc 2020) 및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20)의 일부 등을 활용하였다. 다음 표는 단계별 시험 준비 진단 항목이다.

표 4. 단계별 시험 준비 진단

수험자 정체성	진단 항목	내용
시험 가치 수행	수험자 시험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수험자의 시험 준비 목적 및 기간 o수험자의 목표 등급 획득 여부 o수험자의 목표 등급 특징 이해 여부 o수험자의 목표 등급 특징에 따라서 시험 준비 활동 여부 o수험자의 시험 형태 이해 여부
시험 준비 수행	수험자 정체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수험자의 시험 준비 모드(예: 프로그램 수강 혹은 자가학습) o수험자의 실제 정보(신분, 직업, 주제군)를 사용하여 발화 연습 여부 o발화 연습 시, 개인 경험 즉흥 발화 여부 o발화 연습 시, 답변 녹음 후 자가평가 여부 o자가평가 시, 자신의 발화 강점 및 약점 인식 여부 o학습 자료 구성은 과거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여부 o학습 자료에서 모범답안 사용 방법(예: 답안 암기 혹은 자신의 답안 작성에 이용) o자가평가 시, 자신의 발화 강점 및 약점 인식 여부
언어 구술 수행	수험자 발화 샘플	1)내러티브 발달단계 및 2)내레이터 정보/성찰 진단 3) 영어 말하기-자아상

시험 준비 진단 항목은 직장인-수험자 정체성을 활용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즉, 1. 시험 가치 수행, 2. 시험 준비 수행 그리고 3. 언어 구술 수행이다. 다음은 각 구성에 대한 진단 항목 및 진단 절차 예시이다.

4.3.1 시험 가치 수행

시험 가치 수행은 수험자의 목표 정체성으로 기업 맥락에서 제시되는 목표 등급 획득을 통한 ‘인력상’이다(김나희 2019). 이것의 진단 항목은 ‘시험 지식 이해’로 수험자의 목표 등급에 대한 시험 지식 이해를 진단한다. 내용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 목적, 기간, 목표 등급 특징 및 시험 형태 이해에 관한 진단이다. 시험 지식 이해 항목은 총 6문항으로 먼저, 1. 시험 준비 목적과 2. 기간이다. 이후, 수험자의 목표 등급 특징 이해는 3. 목표 등급 획득 여부, 4. 목표 등급 특징 이해 여부 및 5. 목표 등급 특징에 따라서 시험 준비 여부 등이 진단된다. 마지막으로 수험자의 시험 형태 이해는 시험 응시 절차의 4가지 영역(예: 사전 설문, 자가평가, 시험 안내, 출제 문항)에 대한 이해도 점검이다. 다음 그림은 목표 등급 중심의 시험 이해 진단 절차 예시이다.

수험자 A가 평가 장소에 입장한다.

↓

교수자는 수험자 A에게 시험 준비 진단 녹음절차 설명. "지금부터 시험 준비 진단을 녹음할 것입니다. 질문은 총 6개입니다. 한국어로 6가지 질문이 프롬트로 주어집니다. 질문의 내용과 절차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

1. (교수자 질문) 시험 준비 목적은 무엇인가요?

↓

(학습자 답변) 예)진급 및 인력선발 자기계발

2. (교수자 질문) 현재, 시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습자 답변) 예)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교수자 질문) 목표 등급은 획득했나요?

↓

네/아니오

4. (교수자 질문) 자신의 목표 등급 특징을 알고 있나요?

↓

네/아니오

5. (교수자 질문) 목표 등급 특징대로 시험 준비 활동을 하고 있나요?

↓

네/아니오

6. (교수자 질문) 시험 형태는 알고 있나요?

↓

네/아니오

(아래는 위의 6번 문항에 대해서 '네'로 답할 경우 질문예시)

→ 사전설문(Background Survey)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아니오

→ 자가평가(Self-Assessment)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아니오

→ 시험 안내(Test Administration)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아니오

→ 출제 문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아니오

그림 5. 시험 지식 이해 진단 절차

위의 시험 지식 이해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수험자 A가 평가 장소에 입장한다. 그리고 2) 교수자는 학생 A에게 녹음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즉, "지금부터 시험 준비 진단을 녹음할 것입니다. 질문은 총 6개입니다. 한국어로 6가지 질문이 프롬트로 주어집니다. 질문의 내용과 절차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후 순서대로 주어진 질문을 수험자에게 제공한다. 채점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서술형 질문(예: 1. 시험 준비 목적 및 2. 기간)을 제외하면 '네'/'아니오'와 같은 이분법 방식이다.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한다. 이때, 수험자 설명이 필요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응답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

4.3.2 시험 준비 수행

시험 준비 수행은 실제 시험 준비 활동을 통하여 경험되고 습득되는 정체성 형성(김나희 2019)이다. 여기서 진단 항목은 수험자의 실제 정체성 정보(신분, 직업, 주제군)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업무 환경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수험자가 실제 시험 준비 활동에서도 이러한 전문가 정체성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다. 진단은 크게 1) 학습 모드, 2) 학습 방법, 3) 학습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표는 시험 준비 활동 진단을 위한 과제 예시이다.

표 5. 진단 과제 예시

구분	항목	예시
1	학습 모드	“시험 준비 모드는 어떻게 되나요?” (예: 프로그램 수강 혹은 자가학습) “발화 연습 시, 수험자의 실제 정보(신분, 직업, 주제군)를 사용하여 학습하나요?”
2	학습 방법	“발화 연습 시, 개인경험 기반의 즉흥 발화로 연습하나요?” “발화 연습 시, 답변 녹음 후 자가평가를 하나요?” “자가평가 시, 자신의 발화 강점 및 약점을 알고 있나요?” “학습 자료는 과거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	학습 자료	“학습 자료에서 모범답안 사용 방법(예: 답안 암기 혹은 자신의 답안 작성에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학습 모드는 수험자가 선택한 학습 방식으로 시험 준비 프로그램 혹은 자가 학습 여부로 판단한다. 둘째, 학습 방법은 선택한 학습 방식에서 연습하는 활동으로 시험 형태 절차에 따라서 수험자 실제 개인 정체성 정보 사용, 문항 연습에서 즉흥적 개인 경험 발화 연습, 자가평가 연습 및 자신의 발화 진단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는 시험 준비 자료 구성 및 사용 방법이다.

시험 준비 활동 진단 절차는 그림 1의 시험 지식 이해 진단 이후에 실시한다. 채점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총 7문항 중에서 서술형 질문을 제외하면 ‘네’/‘아니오’와 같은 이분법 방식이다.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한다. 이때, 수험자 설명이 필요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응답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

4.3.3 언어 구술 수행

언어 구술 수행은 수험자의 실제 영어 구술 능력 및 영어 발화 자아상에 관한 진단이다. 발화 샘플 진단은 앞서 언급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20)의 일부(내러티브 발달단계 및 내레이터 정보/성찰)를 사용한다. 그리고 추가로 영어 발화 자아상 과제가 제시된다. 다음은 수험자 발화 샘플 진단 절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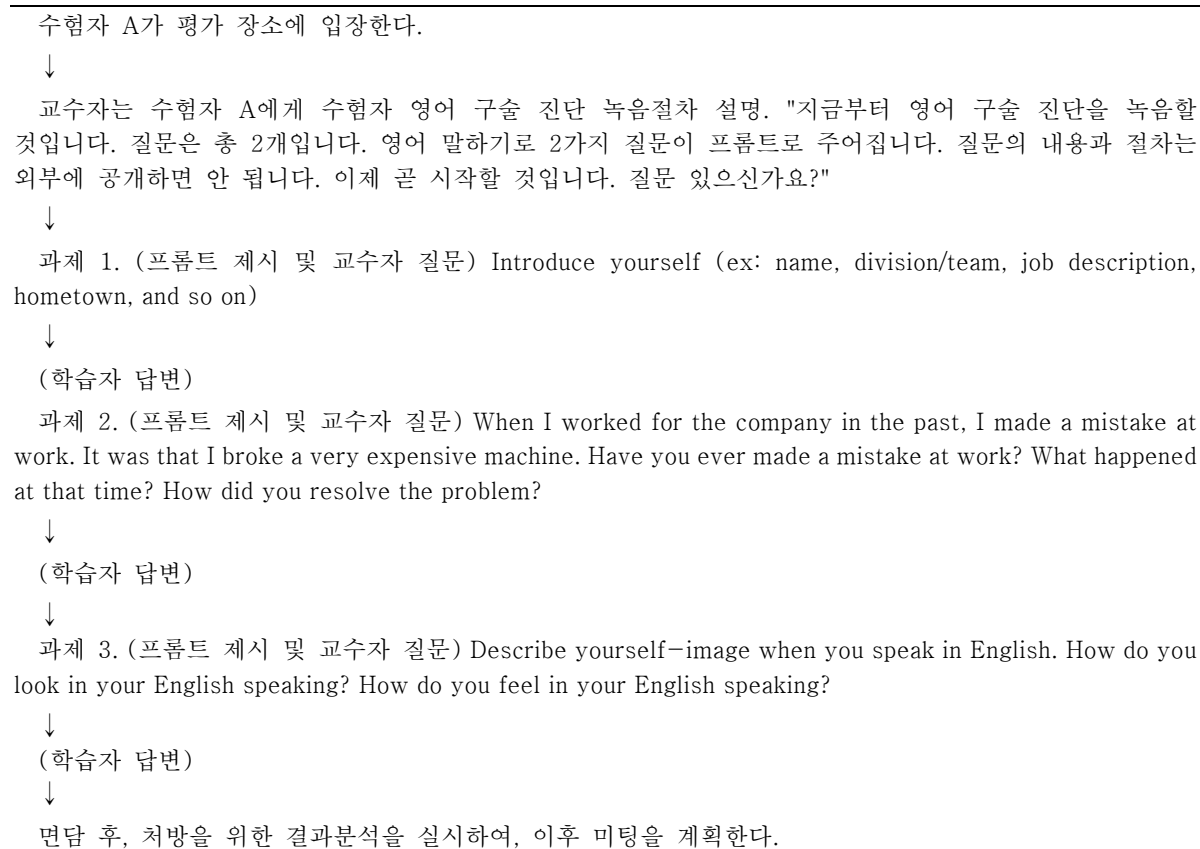


그림 6. 수험자 발화 샘플 진단 절차

위의 순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험자 A가 강의실(평가 장소)에 들어온다. 그리고 연구자는 학생 A에게 녹음절차에 대해서 위의 순서도에 적힌 예시와 같이 설명한다. 주어지는 과제는 세 가지로 자기소개, 과거 실수했던 개인 경험 내레이션 그리고 영어 구술 자아상이다. 발화 시간은 총 6분이며, 질문은 교수자 질문과 함께 프롬트로도 주어진다. 이때, 개인 경험 내러티브 평가의 자연스러운 대화 방법(Peterson and McCabe 1983)에 따라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자연스러운 영어 구술 활동으로 진행한다. 각 과제에 대한 질문 및 학습자 발화가 시작된다. 면담 후, 수집된 발화 샘플은 전사되며 이야기 구술 능숙도 등급표(신동일, 김금선, 심우진, 김나희, 전종운, 김세희, 김주연, 정태영 2018)를 참조하여 수정한 다음 내러티브 발달단계 채점표(김나희 2021)를 사용하여 1차 판정을 한다.

표 6. 내러티브 발달 단계 채점표

등급	단계	관정기준
1	활동나열	1) 활동(action) 동사를 사용하여 일상의 활동들을 나열할 수 있다. 2) 습관적인 행동을 묘사할 수 있다.
2	시간순서	3)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3	원인결과	4)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 및 원인 결과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4	서사구조	5) 줄거리를 처음(배경)-중간(문제)-끝(결과)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6)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후, 내레이터 정보/성찰이 판정된다. 내레이터 정보/성찰은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요소(Stein and Glenn 1979)를 참조한 다음의 내레이터 정보/성찰 채점표(김나희 2020)를 사용하여 판정한다. 서사 구조 단계별(처음-중간-끝)화자 정보, 문제 반응, 결과 성찰을 반영하는 요소 포함 여부이다.

표 7. 내레이터 정보/성찰 채점표

구분	요소	관정기준
1	화자소개	1) 이야기 처음에 화자 소개(이름, 직업,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문제반응	2) 이야기 중간에 문제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등의 반응, 성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결과성찰	3) 이야기 결말에 결과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교훈, 깨달음과 같은 성찰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시험 준비 진단 항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하여 진단 처방을 위한 미팅을 계획한다.

4.4 학습자 발화 샘플 예시

전체 진단 중, 본 논문에서는 수험자 A의 발화 샘플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8. 과제 1 학습자 발화 예시

과제 1 학습자 발화 예시			
My name is 00 0. English name is 00. I am 00 years old. ye, uh, I live in 00 in 00. My family, my wife, my son, and the other is daughter. My son is in high school, my daughter is middle school. Uh, as you know, my company is 00. My department is 00. My position is a leader of 00. Uh, my personality is outgoing, and passion of the everything. I try to, I try to watch bright side of all of things. And then my favourtiness is watch movie, watching sport game, such as baseball, soccer ye, and I like to take a walk, so every day, my, my house in 00, I, I take a walk from house to my company, every day, it took an one hour. And I love to talk about someone. I have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someone. My future plan is work hear until 00, ye, and then, somewhere, build 00 school with my colleagues, somewhere such as 00, teach them, this is my future plan.			
■ 내러티브 발달단계 채점표			
등급	단계	판정기준	판정
4	서사구조	- 줄거리를 처음(배경)-중간(문제)-끝(결과)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 - (해당 없음) 따라서
3	원인결과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 및 원인 결과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2	시간순서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1	활동나열	- 활동(action) 동사를 사용하여 일상의 활동들을 나열할 수 있다.	○
■ 내레이터 정보/성찰 채점표			
구분	요소	판정기준	판정
1	화자소개	1) 이야기 처음에 화자 소개(이름, 직업,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문제반응	2) 이야기 중간에 문제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등의 반응, 성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결과성찰	3) 이야기 결말에 결과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교훈, 깨달음과 같은 성찰이 포함되어 있다.	○

학습자 A의 자기소개는 먼저, 내러티브 발달단계에서 자기소개의 발달단계 최고등급인 3등급 원인결과레벨이다. 참고로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특정 에피소드 중심의 서사구조가 아니기에 원인결과 단계인 3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자기소개 발화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일상 활동들을 나열, 시간순서 및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I like to take a walk, so every day, my, my house in 00, I, I take a walk from house to my company, every day, it took an one hour', 와 같이 걷기를 좋아하기에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집에서 회사까지 걷기 활동을 1시간 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내레이터 정보/성찰의 경우에 구술 초반에 화자소개가 한국어 이름/영어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 관계, 부서, 직책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반에 해당하는 성격, 성향, 취미, 좋아하는 것 등을 언급하면서 화자의 감정, 반응 등을 'I love to talk about someone', 와 같이 관련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미래의 꿈까지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동일 수험자의 과제 2에 해당하는 개인 경험 실수담에 대한 구술 샘플이다.

표 9. 과제 2 학습자 발화 예시

과제 2 학습자 발화 예시			
<p>I remember the time when I had a big mistake in our company. Uh That time was, that time was uh, I entered this company, this company. About 3 months my boss gave me some um some subject. But it was, it was some piece of cake to me. So I uh.. took at the test but uh the result is was very bad because I had a mistake to test, when I was test, test uh..test I had a mistake. Um, the result was, uh...ah...so bad. I went to my boss and I said to my mistake. Uh.. my boss said, "uh that that was no problem. You and, you tried to do again". So I could try to do again. Ever since that experience, when I was test something, I UH, I am thinking fully, I am thinking fully and how to test, test something. I test, I always test um. that was one of the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ost experience in my workplace.</p>			
<p>■ 내러티브 발달단계 채점표</p>			
등급	단계	판정기준	판정
4	서사구조	-줄거리를 처음(배경)-중간(문제)-끝(결과)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
3	원인결과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 및 원인 결과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2	시간순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1	활동나열	-활동(action) 동사를 사용하여 일상의 활동들을 나열할 수 있다.	○
<p>과제 2 내레이터 정보/성찰 채점표</p>			
구분	요소	판정기준	판정
1	화자소개	1) 이야기 처음에 화자 소개(이름, 직업,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문제반응	2) 이야기 중간에 문제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등의 반응, 성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결과성찰	3) 이야기 결말에 결과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교훈, 깨달음과 같은 성찰이 포함되어 있다.	○

학습자 A의 개인 경험 실수담 내러티브 발달 단계는 최고등급인 4등급 서사구조 레벨이다.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경에 해당하는 'That time was, that time was uh, I entered this company, this company about 3 months'와 같이 시간, 장소를 입사 3개월쯤 되었을 때로 언급하고 있다. 문제와 반응의 경우는 상사가 테스트 과제를 내주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안 좋았고, 그 과정에서 화자가 실수했음을 서술하였다. 해결을 위한 시도로 상사에게 직접 가서 실수를 고백했으며, 결과로 상사가 격려하며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시도한 이후에 깨달은 점을 'I am thinking fully, I am thinking fully and how to test, test something. I test, I always test um. that was one of the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ost experience in my work place,'와 같이 자세히 언급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내레이터 정보/성찰의 경우에 구술 초반에 화자소개가 회사로 언급되고 있다. 자기소개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화자소개와 비교 시, 여기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맡았으며, 상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테스트 과제를 주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기업의 업무 보안상 자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는 문제에 대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bad’와 같은 표현으로 반복하였다. 또한 이야기 결말의 실수에 대한 화자의 성찰과 깨달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동일 수험자의 과제 3에 해당하는 영어 구술 자아상에 대한 구술 샘플이다.

표 10. 과제 3 학습자 발화 예시

과제 3 학습자 발화 예시			
As you know, I have studied English for a long time, about 00 years. However, although many years have passed, I still think my level of English is not very well. I am still scared of talking with foreigner in English, especially with blue eye’s people. And I am not happy and even though I have a lot what I want to say, I often think this conversation is more early over. Myself image standing in front of English is small and tiny. Sometimes I even looked shabby. Whatever I think, whatever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t fluently. That's why I listen to this class at present and I hope my dream come true when this class finishes.			
■ 내러티브 발달단계 채점표			
등급	단계	판정기준	판정
4	서사구조	- 줄거리를 처음(배경)-중간(문제)-끝(결과)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
3	원인결과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 및 원인 결과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2	시간순서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1	활동나열	- 활동(action) 동사를 사용하여 일상의 활동들을 나열할 수 있다.	○
과제 1 내레이터 정보/성찰 채점표			
구분	요소	판정기준	판정
1	화자소개	1) 이야기 처음에 화자 소개(이름, 직업,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문제반응	2) 이야기 중간에 문제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등의 반응, 성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결과성찰	3) 이야기 결말에 결과에 대한 화자의 자아상, 감정, 태도, 생각, 교훈, 깨달음과 같은 성찰이 포함되어 있다.	○

학습자 A의 내러티브 발달 단계는 최고등급인 4등급 서사구조 레벨이다.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경에 해당하는 ‘As you know, I have studied English for a long time, about 00 years’와 같이 영어 학습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시간 배경으로 언급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문제와 반응의 경우는 오랜 시간을 영어 학습을 했지만 영어 실력이 좋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I am still scared of talking with foreigner in English, especially with blue eye’s people. And I am not happy and even though I have a lot what I want to say’와 같이 감정 및 묘사 형용사로 구체적인 감정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Myself image standing in front of English is small and tiny’와 같이 자아상을 작고 초라함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구술 학습에 대한 목표 의식 및 강한 동기를

‘Whatever I think, whatever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t fluently’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 및 바람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수행 프로젝트의 탐색적 후속연구로 글로벌 기업 맥락의 직장인-수험자들을 위해 기획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제작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DT 설계 절차를 활용하였다. 각 단계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은 글로벌 기업의 언어 시험 준비 맥락 이해이다. 연구 현장이 되는 글로벌 기업 A는 기업 채용, 승진 및 인력 선발 등에서 OPIc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어학시험 준비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기수행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2018년에 해당 기업의 정규 사내어학과정에 처음 개설된 스토리텔링 영어 말하기 수업 교사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이면서 교수자로 직접 연구 현장에서 관찰, 교육, 평가, 면담 등을 수행하면서 직장인-수험자 시험 준비 필요를 이해 및 공감하게 되었다.

단계 2의 직장인-수험자가 원하는 필요는 (단기간)목표 등급 획득 및/혹은 실제적인 영어 구술 능력 향상이었다. 예를 들면,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을 우선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 기존 시험 준비 방법의 과도한 모범답안 암기가 적절한 방법인지를 고민하였다. 또한 시험 준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험 준비 질문들은 오로지 수험자의 몫이었다. 목표 점수 획득 중심이기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험자의 여러 질문들과 성찰들은 해소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자가 교수자로 직접 직장인-수험자들을 교육하면서 발견한 점은 연구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험자 정체성은 전문가 정체성이었다. 예를 들면, 영어 구술 능력과는 별도로 직장인-수험자들은 글로벌 기업의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는 높은 자부심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이미 해당 기업에서 강조되는 높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탁월한 문제 해결 수행력은 과업 중심의 즉흥적 영어 구술 스토리텔링 수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주어진 영어 구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 시험 준비법은 이러한 직장인-수험자의 전문가 정체성을 시험 준비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방법적 제한이 있다. 특히, 과도한 암기법은 직장인-수험자에게 오히려 시험 불안감 및 영어 말하기 두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단계 3은 적절한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기획하며 국내외 문헌에서 기준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조사하였다. 단계 4에서는 프로토타입 제작 기준의 참조점이 되는 직장인-수험자 정체성(김나희 2019), OPIc 시험 절차 및 등급 안내(OPIc 2020), 수험자 가이드(ACTFL 2020, OPIc 2020), 윤리적 시험 준비 활동(Mehrens and Kaminski 1989) 및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20) 등을 활용하여 시험 준비 진단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수행 프로젝트의 언어 시험 준비 프로그램 연구의 탐색적 후속연구로 교수자가 연구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시험 준비 진단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고 탐색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수많은 (예비)직장인들이 생존과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에 대해서 적절한 시험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그 과정을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시도되었지만 탐색 연구 특성상 후속 연구에서 개선해야 하는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첫째,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해당 글로벌 기업에서의 적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이해, 공감 및 문제 탐구를 통해 기획된 시험 준비 진단 제작의 구체적 목표가 프로토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토타입은 최종 결과물이 아닌 이전 단계의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시화된 아이디어 제작이다(김건희 2019). 연구 수행 기간에 발생한 장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는 DT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연구 현장에서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해당 글로벌 기업의 적용을 통하여 피드백 수집을 통한 각 진단 프로토타입의 구체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수험자 정체성 개념의 명료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직장인-수험자 정체성 관점으로 시험 준비 진단 프로토타입 개발을 탐색하였다. 정체성 개념 자체가 갖는 추상적, 철학적, 모호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탐색적이다. 후속 연구에서 해당 글로벌 기업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하여 직장인-수험자 정체성 개념의 명료화 및 프로토타입 진단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현장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높은 보안과 참여자 요청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교수자로 글로벌 기업의 언어 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 이해 및 공감을 통한 DT설계 절차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맥락의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교실 교육 및 교실 밖에서의 개별 혹은 그룹 수험자 진단, 시험 준비 학습 코칭, 상담 및 진단평가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기획, 수정 보완되어 평가 도구 실행으로 교수자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명주 · 정경희 · 조정아(Kang, M., K. Chung and J. Cho). 2019. 간호학 임상실습에서 디자인씽킹 기반 팀 프로젝트 학습 설계 및 적용효과(A design and effect of design thinking-based team project learning in nursing clinical practice).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336-348.
- 김건희(Kim, G. H). 2019. 중앙대학교 디자인 씽킹 코치 양성 과정(Design thinking based coaching workshop at Chung-Ang University).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학생중심 교육설계 워크숍 자료집(*Workshop Materials of Design Thinking-Based Student-Centered Teaching Method*), 중앙대학교(Chung-Ang University). 서울(Seoul).
- 김나희(Kim, N. H). 2019. 기업 맥락에서 직장인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수험자 정체성 관점으로(Employees' high stakes English test preparation: From test taker identity).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3, 475-499.
- 김나희(Kim, N. H). 2020. 글로벌 기업의 영어시험 준비 교육 사례연구: 내러티브 정체성

- 관점으로 (A case study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test preparation: From a narrative identity perspective).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692-719.
- 김나희(Kim, N. H). 2021. 내러티브 정체성 기반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글로벌 기업 교육 실행(Narrative identity based English speaking test preparation: Action research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education).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22-1, 149-175.
- 김수연 · 오유진(S. Kim and Y. Oh). 2019. 디자인 씽킹 기반 어플리케이션 적용 음악수업 활동과 이에 대한 효과성 탐색(Explore the effectiveness of music class based on design thinking and using applications).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 233-244.
- 배지현(Bae, J.). 2021.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디자인 씽킹 중심의 유아언어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 to improve th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language education based on design thinking for prospective kindergarten teachers).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2, 119-131.
- 신동일 · 김금선 · 심우진 · 김나희 · 전종운 · 김세희 · 김주연 · 정태영(Shin, D., K. Kim, W. Shim, N. Kim, J. Jeon, S. Kim, J. Kim and T. Jung). 2018. 글로벌 기업에서 스토리텔링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과 적용: 능숙도 향상을 목표로(Developing a curriculum of English storytelling in a global corporation's context: Focus on proficiency building).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265-278.
- ACTFL 2020. <https://www.actfl.org/center-assessment-research-and-development/actfl-assessments/actfl-postsecondary-assessments/oral-proficiency-interview-opi/tips-opi-and-opic-test-takers>에서 2020년 1월 2일에 검색했음.
- Bryman, A. 2004.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lcher, G. 2010. *Practical Language Testing*. London: Hodder Education.
- Kim, H. 2015. Learner-directed evaluation in college English speaking class: Can peer assessment supplement teacher assessment? *English Language Teaching* 27(4), 131-151.
- Kim, N. H. (2013, July). Impact of English speaking test preparation on Korean test takers' identit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35th LTRC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Seoul, Korea.
- Mehrens, W. A. and J. Kaminski. 1989. Methods for improving standardized test scores: Fruitful, fruitless, or fraudulent?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8(1), 14-22.
- OPIc 2020. <https://www.opic.or.kr/opics/servlet/controller.opic.site.about>. About Servlet?p_process=move-page-examProgress&p_nav=3_1_1. 2020년 2월 1일에 검색했음.
- Peterson, C. and A. McCabe. 1993. Parental styles of narrative elicitation: Effect on children's narrative structure and content. *First Language* 12(36), 299-321.
- Ricoeur, P. 2010. *Time and Narra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in, N. and C. Glenn. 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O.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53–120. Norwood, NJ: Ablex.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